

# 순수한 매력의 나라, 라오스(1)

채 종 일 ·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하노이에서 라오스의 수도  
브엔트안으로...

**지** 녁을 베트남식 개(犬) 요리와 함께 중국 고량주를 곁들여 아주 맛있게 먹은 우리 일행은 다음 날 아침 하노이 공항으로 이동한 후 오전 11시에 브엔트안(Vientiane)으로 향하는 자그마한 60인승 프로펠러기에 탑승했다.

비행기가 너무 작아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으나 필자는 라오스 국내에서 이미 비슷한 비행을 타 본 일이 있어 의연한 척 하며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간단한 스낵을 주어 먹었더니 어느새 곧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하노이와 브엔트안은 매우 가까워서 한 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지방 공항처럼 생긴 한적한 브엔트안 국제공항(Wattay)에 내린 우리는 우선 유료비자를 받느라고 잠시 시간을 보냈다.

지난 해에 필자 혼자 라오스를 방문할 때는 1인당 미화 50불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라오스 화폐인 킵(kip) 가치가 폭락하여 30불

로 내려 발급해주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가 값비싼 Lao Plaza 호텔을 예약해두고는 호텔에서 미니버스까지 동원시켜 마중을 나왔으나 우리는 여비도 절약할 겸 중급 호텔로 바꾸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다시 잡은 호텔이 Lane Xang 호텔이었다. 이 호텔은 바로 메콩강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Lane(란)은 만(萬), Xang(상)은 코끼리(象)라는 뜻으로 “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이었다.

그만큼 주변에 코끼리가 많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장소로 찾아가지 않는 한 코끼리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 브엔트안에서의 첫 날

가벼운 마음으로 여장을 푼 후 오후 2시경 일단 WHO 고문관실로 향하였다. 필자가 위치를 알고 있다고 장담하였으나 가이드의 차가 갑자기 다른 길로 접어들자 전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어 한참을 헤맨 끝에야 겨우 찾아가게 되었다.

고문관인 Dr. Giovanni



▲ WHO 고문관 Dr. Deodato와 만찬

Deodato를 찾았으나 마침 외출 중이었고 내일 아침에 들려달라는 메시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저녁식사로 호텔 식당에서 가이드가 권하는 라오스식 정찬을 들었다.

전통적인 라오스 생음악과 함께 젊은 남녀의 무용(태국의 손바닥 뒤집는 듯한 민속 춤과 거의 비슷함)이 공연되는 라이브 카페식 전통 식당이었다.

그런데 장고나 팽가리와 비슷한 악기들도 사용하고 있어 어쩐지 우리 고전음악, 춤과 비슷한 점도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음식은 베트남 음식과는

양계, 중국계, 인도-서역계 등으로 매우 혼합된 민족이며, 또한 태국 북동부의 주민은 대개 라오스계인데 과거에는 태국 북동부와 라오스 전체가 “대 라오스 왕국”으로 한 나라에 속했다고 한다.

이 “라오스 왕국”이 중세기에 태국에 의해 모두 함락되었고, 한참 후에야 국토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현재의 라오스가 다시 독립하여 결국 과거의 거대한 라오스 왕국은 2개로 쪼개지게 된 것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언어도 태국어와 라오스어가 거의 같아서 서로 막힘없이 잘 알아들으며(라오스 국민은 대개 태국 북동부의 콘켄 등에서 오는 태국 TV 방송을 듣고 지낸다), 관습이나 풍습도 매우 비슷하다.

흥미있는 점은 태국 북부 Chiang Mai 등 산악지대에 고산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몽고계 후예로서 모습이나 생활관습 등이 우리나라와 너무나 흡사하다.

얼마 전 국내 학자가 혈액 내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 한국인, 몽고인, 태국 고산족이 서로 거의 일치한다는 보고를 한 일이 있다.

필자도 태국의 고산족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거기의 어린이들이 필자의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는 점에 감탄사를 연발한 일이 있다. 문제는 이들 고산족과 라오스인이

또한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라오스 북부에도 산재해 있는 고산족들은 태국의 고산족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정도이다. 이들을 보면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닌다든가, 물동이 같은 것을 머리에 얹어 운반한다든가, 아이들이 활쏘기를 좋아한다든가 등등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다.

필자의 짧은 견해로는 한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북부 등에 사는 인종은 원래 몽고 계통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몽고계 인종들이 일부는 한반도로, 일부는 인도지나 반도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 정착한 결과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한국인과 베트남인, 한국인과 라오스인, 한국인과 태국 북부인과의 혈연관계는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적한 시골 같은 순수한 매력의 나라 라오스(Laos)

라오스(공식 명칭은 Lao PDR)는 현재까지 공산권 국가 중 가장 개방이 늦은 몇 나라 중 하나지만 최근에 급속도로 개방 정책을 펴고 있어 조만간에 베트남 못지 않은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토의 넓이(베트남의 2/3 정도)에 비해 인구는 겨우 500만명으로, 설령 어떤 제품을 새로 개발한다고

다른 특이한 맛이었고, 특히 진흙에 싸서 구운 닭요리는 일품으로 중국식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한국인과 라오스인은 근연 혈통간인가?

음악과 춤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매우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라오스 민족의 기원이 과연 어디였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웃나라 태국인들은 남



▲ 간혹총 감염원으로 생각되는 생선가게에서 상인과 대화.

해도 내수 시장이 워낙 적어 수지가 맞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은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가이드는 설명해 주었다. 길거리의 모습도 한 나라의 수도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읍, 면 소재지 정도의 규모로 사람의 왕래도 별로 없고, 흥청거리고 놀 곳도 없으며, 마땅한 관광지도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필자가 1995년에 한 번, 1998년에 또 한번 WHO 자문교수로 초청을 받아 현지 임상병리 기사 훈련과정에 참여한 일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방문에 또다시 참여한 이유가 있다.

그 중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이 나라가 주는 포근함과 순수함, 그리고 나름대로의 커다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매력이란 첫째 이 곳이 매우 평화롭고 한적하며, 지극히 맑은 공기를 유지하고 있어 사람 살기에 무척 좋은 곳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물가가 너무나 싸서 한국 돈 10만원 남짓이면 1개월 정도 식비 및 잡비(숙박은 별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생활하기에 부담이 없는 곳이기도 하며, 셋째는 사람들이 소박하고 순진하며 결코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한 민족성(한국의 인심좋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수도 브엔트안에는 차량이 제법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끔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두 사람이 허리를 굽혀 서로 사과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결코 목청을 높여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의 민족성이 얼마나 온화하고 순박한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이 잘 살지는 못해도 그토록 편안한 마음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유의 하나로 각박한 전쟁을 겪은 일이 전혀 없음을 들기도 한다.

필자는 4년 전 수도 브엔트안에서 남쪽의 강변 도시 팍세(Pakse)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서 은근히 놀란 일이 있다.

탑승 수속을 하긴 하지만 가방 같은 것을 열어 보는 일이 전혀 없고, X-ray 투시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국제선에는 있으나...) 그냥 우루루 사람들이 가방을 든 채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닌가?

아니, 저 사람들 중에 혹시 하이재킹(high-jacking)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 라오스가 공산권이라 신변 안전에 은근히 걱정을 했던 필자였기에 그렇게 영성한 비행기 탑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이 그런 각박한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일을(하이재킹 같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의 나라에 특별히 잘못된 일도 없고, 으르릉대는 적대국도 없고, 값싼 비행기를 끌고 어디로 가 봐야 처치 곤란이지만 하지 전혀 득이 없을 것이고, 사람 다칠 것

이고...

### 보건관계자들과의 면담과 그 성과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텔 조식권으로 식사를 한 후 8시경 WHO 고문관실로 향하였다. 마침 Dr. Deodato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Dr. Deodato는 이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성격 급하고 다혈질인 이탈리아인 전혀 아니었고, 마치 동양인처럼 겸손하고, 얌전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의 방문 목적과 기생충 관리사업의 필요성 및 WHO에 대한 협조 요망 사항 등을 설명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즉, 라오스 측 대표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였다. WHO Office를 나와 9시에는 국립검역-역학조사센터(한국의 국립보건원에 해당)의 Dr. Phengta Vongphrachanh을 만나 역시 우리의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곧이어 10시에는 한국인 김정인 목사가 운영하는 Lao Mission Center를 방문하여 라오스에 의료지원을 할 경우 대행이 가능한지, 또 그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 목사는 라오스에 온지

약 3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고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그 짧은 기간에 라오스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회화집까지 발간한 매우 유능하고 부지런한 분이였다.

이 날은 우리 일행이 라오스에서 가장 바쁜 날이었다. 곧바로 11시에는 라오스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 "Mahosot 병원"의 부원장 Dr. Kongsap Akkhavong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줄곧 분주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병원은 1903년에 개원한 전통있는 병원으로서, 라오스 유일의 의과대학인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College of Medicine"에 대해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으나 45병상 규모로 매우 작은 편이었고 시설, 설비도 차마 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부원장이 우리가 꼭 방문해주도록 요청했던 것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타진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

벌써 무덥고 지치는 것 같았으나 점심을 공항 근처( 시내와 공항이 매우 가까움)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라오스/베트남식 국수인 포(pho)를 먹고 곧바로 보건성 소속 국립기생충연구소인 Institute of Malariology, Parasitology, and Entomology

(IMPE ;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이름임)를 방문했다.

마침 소장인 Dr. Khamliene Pholsena가 출장 중이라 없었고, 부소장인 Dr. Samlane Phompida도 무슨 세미나에 참석 중이라 하면서 과장급들만 3~4명이 우리를 접견했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소장, 부장 등 책임자는 자리에 없고 부소장, 부부장 등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흔히 있는 일이고, 이미 익숙한 터라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으나, 일이 잘 추진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일은 잘 추진되었다. 과장 하나가 라오스의 기생충 현황을 잘 briefing 해 주었고, 다음 날 타이간흡충(Oπισθορ-χισ viverrinii)의 농후 유행지 중 하나인 Nam Ngung Dam(라오스에서 가장 큰 댐)을 견학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라오스의 타이간흡충 관리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셈이어서 일단 우리의 방문 목적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 날 저녁은 WHO의 Dr. Deodato가 라오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라오스식 정찬을 접대해 주었다. 음식이 깔끔하고 매우 맛있었으나 양이 너무 많아 다 비우지도 못한 채 일어나 호텔로 향하였다. <계속> 2